

8억 8천 6백만 달러를 기록한 작년의 매출 중 80%의 매출이 메모리와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나온 사이프레스가 프로그래머블 시스템 온 칩(PSoC: Programmable System-on-Chip)의 글로벌 캠페인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프로그래머블 아날로그, 프로그래머블 디지털, 8비트 CPU와 플래시 메모리를 싱글 칩으로 구현한 PSoC은 매우 유연한 디자인 플랫폼과 짧은 개발 기간 등의 특성으로 인해 시스템 개발의 타임 투 마켓에 상당한 장점을 제공한다.

부품 수를 줄임으로써 시스템 생산을 단순화시켜 전체적인 제조 비용을 낮추는데 기여하는 PSoC은 각종 가전에서뿐 아니라 휴대용 기기, 모니터, 자동차, 컴퓨터 주변 기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채용되고 있다.

EISC타입의 일반적인 SoC와는 달리 PSoC은 플래쉬에 기반을 둔 Higher-Density 기술로서 전자 레인지, 산업용 모터 컨트롤 분야 등 저가의 범용 애플리케이션에서부터 휴대폰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적용된다.

사이프레스는 국가별로 PSoC에 관한 기술 응용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고객층을 두텁게 하고 있으며 PSoC의 두 번째 버전을 2사분기 중에 출시할 예정이다. 그런가 하면 임베디드 디자인 툴인 PSoC Express를 내놓음으로써 시스템 개발 시간을 더욱 단축시킬 야심을 갖고 있기도 하다.

“실제로 이 툴을 이용하면 코드 제작을 하지 않고 ‘드랙’만 함으로써 회로 디자인을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설계에 드는 시간이 수 일에서 수 시간으로 단축된다.”는 놉 타페(Norm Taffe) 컨수머, 컴퓨터 부문 담당 부사장은 “이를 이용해 개발자들은 마이크로 프로그래머의 역할에서 벗어나 애플리케이션 분야의 전문가”로 더욱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프로그래머블 라디오 온 칩(PRoC: Programmable Radio-on-Chip)은 무선 USB와 PSoC을 한데 모은 세계 최초의 프로그래머블 혼성 신호 어레이로서 CMOS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핀과 안테나 역할 모두를 실행하는 이 칩 기술은 2.4GHz의 무선 대역을 카바하며 작년에 이미 4천 7백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한 바 있

Cypress, PSoC, PProC으로 시스템 개발 기간을 단축시킨다

프로그래머블 아날로그, 프로그래머블 디지털, 8비트 CPU와 플래시 메모리를 싱글 칩으로 구현한 PSoC은 매우 유연한 디자인 플랫폼과 짧은 개발 기간 등의 특성으로 인해 시스템 개발의 타임 투 마켓에 상당한 장점을 제공한다.

며 올해에는 약 두 배의 성장이 기대된다.

사이프레스의 독특한 모바일 솔루션으로는 CMOS기반의 이미지 센서, 저전력 소비 메모리, 듀얼 프로세서 인터커넥터, IrDA 다이오드, 멀티미디어 스토리지 커넥션, 화면 백라이트 자동 조절, 캐패시터 타입의 터치 패드 기술 등이 있다. 한국 시장을 주 타겟으로 한 휴대폰용 메모리 컨트롤 시스템 2종도 3사분기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그런가 하면 사이프레스는 점점 커지고 있는 태양열 시장을 놓고 11월에 별도 법인을 설립했다. 기존의 제품에 비해 20%의 효율을 더 많이 가진 태양 전지는 필리핀의 팸 라인에서 25메가 와트 급으로 생산되고 있으며 제2, 제3 팸 라인도 현재 건설 중이다.

향후 300메가 와트 급으로의 제품까지 생산을 계획중인 이 법인은 작년 11월에 기업 공개를 했다. 향후 계속 85%의 지분을 유지할 사이프레스는 이미 7억 달러 어치의 장기 계약을 유럽, 일본, 미국의 고객사로부터 확보해 놓았다.

이미 작년을 기준으로 하여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반도체보다 사용량이 증가했다는 태양 전지의 시장 규모는 2년 내에 두 배 이상 증가하여 3~4년 후면 십억 달러에 이르러 연평균 31%의 폭발적인 성장을 하리라고 회사측은 보고 있다. **SN**

